조정 지역 해제·복합쇼핑몰 요청 다수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듣는다 우체통' 열어보니
군공항 이전 등도 제안…인수위, 100일내 답변키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시민의 민원과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의 바람을 담은 주요 민원은 광주시의 현안이자 장기 숙원과제들과 연결돼 있었고,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도 많아 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머리를 무겁게 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 정책 제안 공간인 '바로 소통 광주'는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새로운 광주 시대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듣는다 우체통'으로 바뀌었다.

이날 오전까지 게시된 글은 모두 104건으로 민선 8기 광주시정의 '과제 목록'이라 할 만큼 다양했다. 분야별로 도시·안전·교통 40건, 관광·문화·예술·체육 13건, 돌봄·교육·건강 14건 등이었다.

최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건의도 다수 올라왔다. 1가구 2주택자, 내 집 마련 예정자 등 사정은 달라도 규제로 어려워진 매매, 대출을 탓하며 저마다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강 당선인도 지난 15일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광주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에 해제를 요청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지역 이슈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은 물론 놀이공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도 시민들은 드러냈다. 군 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굵직한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도 많았다.

발달 장애인 가족 자살 예방, 장애 아동 이동권 보장, 장애인 무료 버스 시행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장애 복지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인수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에 100일 안에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준하 새로운 광주 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민선 8기 정책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녹여 광주의 미래상과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 차기 총선 서구을 출마할 듯

조만간 사무실 개소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한 양부남〈사진〉 전 광주지검장이 조만간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열고, 차기 총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양 고검장은 2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서구 을 지역구에 곧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언급됐던 차기 총선 출마설을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양 전 지검장은 광주 서구 을과 북구 을 선거구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를 통해 사실상 서구을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경선에 나선 황현택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역구 바닥을 조심스럽게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

담양 출신인 그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영입된 뒤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 방어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공격적 검증에 나서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그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굵직한 사건의 수사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카르텔'과는 거리를 둔 인물로 꼽힌다.

따라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양 고검장이 향후 당내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저격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양향자 "정파 뛰어넘어 제2의 반도체 기적 만들것"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첫 회의
"키워드는 초월…협치 새모델"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이끈다.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특위를 만들겠다"며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세액공제, 셋째는 인재양성"이라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어떻게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건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전력·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변화·혁신으로 전남 대도약"

민선8기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비전 마련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지난 민선7기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8기에는 전남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도록 변화와 혁신을 꾀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 비전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에서 민선7기 마지막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민선7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도정 지표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선7기 4년 동안 전남도는 1000개 기업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면서 분양 저조 19개 산단의 분양률이 38%에서 79%로 많이 올랐고, 예산도 7조에서 시작해 11조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도민 개인소득 전국 10위와 근로소득자 평균소득 전국 7위를 기록하는 등 도정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김 지사는 "이같은 성과는 지난 4년간 실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4년간 기존에 추진한 사업을 점증적으로 개선·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획기적 발상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이 되는 대도약의 비전을, 현재 가동중인 비전공약위원회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행복버스에 의사가 탑승해 진료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조선산업 인력 부족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작지만 도민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와 관련해선 "개량화한 지표 이외에도 실적 기술서를 통해 정성적인 부분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디지털플랫폼정부위 7월1일 설치…"맞춤 서비스·과학행정 구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7월 1일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위원회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 장관, 과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5대 과제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선제적 디지털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강화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전대준비위원장 "단일성 지도체제가 약간 우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전준위원장)은 28일 "전준위 내에서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벌써 두세 번 논의했고, 어떤 제도든지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방식으로, 당 대표 후보 중 1등이 대표직을 차지하고 득표순으로 최고위원을 결정하는 이른바 순수 집단지도체제와 차이가 있다.

안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는 "1년 전만 하더라도 권리당원이 70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22만명을 넘어섰다"면서 "권리당원 비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조절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당직은 당원, 공직은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을 중심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이는 것에는 "본인들 스스로 자력갱생, 자강론을 피워가야 한다"면서 "인위적인 세대교체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